

전할 것이다. 과일이나 야채류는 몇번이고 씻어 먹되 「크롤칼키」나 합성세제로써 잘 세척하여 써도 좋다.

파리 바퀴 개미 따위를 철저히 퇴치하는 일도 필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와같은 벌레를 막는다든지 죽여버리는 설비를 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파리의 발생이 월만한 장소를 허용하지 말 것이며 특히 변소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옳을 것이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소는 계모습의 것을 만들 것이며 흡출구는 평시에 봉하도록 하고 또 뚜껑까지도 덮어두면 파리가 변소내에 산란하더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부화하지 못하게 되니 파리가 퍼지않게 될터이니 요즘의 부르짖는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부엌개조와 변소개량은 조속히 실천사항으로 채택하여 마땅할 것이다. 이 두가지가 실현되면 우리 가정에서의 급성병의 발생은 반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위와같은 가정환경 정화와 개인위생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름철 전염병, 장티푸스를 비롯하여 이질, 설사, 광란, 식중독 따위를 다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장티푸스에 대하여서는 여름철이 오기전에 예방주사를 맞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예방주사가 실시된 이후로는 罹病率이 1/15로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또 주민의 70%가 이 예방주사로 충분히 면역되었을 때에는 장티푸스의 유행적 발생은 일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예방주사는 3년에 한번정도 지속적으로 맞으면 좋을 것이나 심장병 신장병이 있는 분이나 임신 후반기에 있는 분은 예방주사를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환자의 배설물에는 소독용 石灰乳를 같은 양으로 붓고 의류 그외의 물건에는 자불소독을 하든지 2% 크레졸소독약에 충분히 넣어서 소독하여야 할 것이다. 보균자의 검출은 당국이 힘써 색출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식품다루기 직업에는 관여못하도록 당국의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보균자의 치료도 가능하니 보건당국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책임지고 보균자의 치료에 역점을 두어 옳을 것이다.

여름철 피부질환의 관리

鞠 泓 一

梨花女大 醫大 皮膚科學教室

머릿말

일년 중 우리들의 피부를 가장 괴롭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더위이나 여름을 맞는 학생들에게는 가지가지 피부병이 번창하고 그 때문에 몹시 고생하기도 한다. 가끔은 집단적으로 이상한 피부병이 발생되기도 한다.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많은 학생들이 조금만 피부를 관리하면 여름철 피부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며, 여기에 왜 여름철에는 피부병이 많아지고 또 어떤 피부병이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관리와 예방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왜 여름철에는 피부병이 많아지는가?

여름철에 피부질환이 증가되는 요인들은 고온 고습의 기후적 여건과 이에 따른 주위 환경적 조건으로 여러가지 병원성세균의 번식, 피부에 해를 줄수 있는 식물의 무성함, 모기, 빈대, 벼룩 같은 위생해충의 번성 그리고 쟁쟁 내러쥬이는 햇볕에의 노출시간의 많아짐 등이 여름철에 피부병을 많게하는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로서 산과 들에 피서가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겠으며,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전염성

농가진, 기계충(두부백선) 및 곤충자상 등의 피부질환은 환경적인 여건들이 여름철이면 비교적 쉽게 타인에 옮김으로써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여름철에는 어떤 피부병들이 많나?

생리적으로 땀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땀띠와 이들의 화농성감염으로 오는 증기, 그리고 모기, 빈대, 벼룩같은 곤충이 물어서 생기는 구진성담마진(일종의 곤충알려지), 조그마한 상처에 균이 들어가 생기는 전염성농가진(부스럼)과 무좀 및 기계충 옷나무피부염 등의 접촉성피부염, 어르레기(일종의 곰팡이병) 및 햇볕의 일시적 과다노출로 생기는 일광화상 등을 볼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잘 생길 수 있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이면 전염성농가진과 구진성담마진과 세균성감염이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좀이나 어르레기같은 곰팡이병이나 옷나무피부염 같은 습진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피부질환이라고 할수 있다.

화농성세균에 의한 피부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눈에 안보일 정도의 작은 상처, 땀띠자국, 벌레물린 자국 등이 화농성세균의 좋은 침입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처가 크지 않고 깊지 않을 때는 비눗물로 깨끗이 닦아주고 항생제연고 혹은 옥도정기를 바르는 것으로 화농성 세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겠고, 또 전염성농가진 같은 피부질환이 학생에게 생겼을 때는 가능하면 격리하거나 개인 사용물을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특히 목욕탕 수영장의 입장을 안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전염성농가진 환자는 간단한 처치로서 옥시졸이나 옥도정기로 딱지를 닦아내고 항생제연고를 하루 2~3회 바르도록 하고, 적어도 7일간은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토록 하고 환자 자신에게는 개인위생상태에 특별히 주의를 주어 손톱, 발톱을 짧게 깎는다든가, 수건, 베개, 장난감의 소독 등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게 좋겠다. 기타 화농

성세균이 땀띠있는 부위에 들어갔을 때 여러개의 증기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물론 병원에서 하나하나 전부 절개하고 배농을 시켜준 뒤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진성담마린과 벌레 물린 증상

여러가지 곤충은 피부에 알리지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때는 물린 자리가 빨갱게 부어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전신적으로 콩알 크기의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이런 어린이는 특별히 조심하고 응급용으로는 「카라민로손」을 바른다든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 피부를 깨끗이 해주는 것이 이차적인 화농성세균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다.

곰팡이병은 어떻게 관리하며 예방할까?

곰팡이병 중에서도 무좀이 무섭다는 것은 그 자체의 가려움증은 물론이지만 이차적인 화농성세균의 감염이 있으면, 발이 붓고 아프고 열이 나며 임파선이 붓는 등 심한 전신증상 때문이며 또 과잉치로로 발생되기 쉬운 습진 때문이다. 무좀은 조기에 치료 받으면 반드시 치료가 된다. 피부를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자주 발을 닦고, 말리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착용하고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면양말을 신는것 등이 치료 및 예방에서도 중요하다. 기타의 곰팡이 병으로써 「어르레기」도 덥고 습한 피부가 특히 잘 침범되는 것이다. 이런 곰팡이 피부병에는 「이미다졸」계열의 광범위 항사상균연고가 비교적 잘 듣는 약이다.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에 신경을 쓰면 곰팡이는 결코 피부를 다시 침범하지는 않는다.

맺 음 말

덥고, 습한 여름철 많은 피부질환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조그마한 노력과 성의로써 우리는 이들로 부터 벗어날 수도 있어 즐거운 여름을 마음껏 보내고 모두 건강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